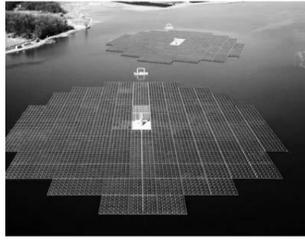


고흥군,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지자체론 처음...해장만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 제안 공고 고시
95MW 규모 11월 우선협상자 선정...총 사업비 2000억원 소요

고흥군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해장만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 제안 공고'를 고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이익을 나누는 이른바 '주민참여형' 형태는

고흥이 처음이다. 고흥군은 500ha에 달하는 해장만 담수호 면적의 20%인 100ha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이 사업은 고흥신에너지가 먼저 제안했으며 사업자 모집에 응하면 총평가 배점의 1%를 가산한다. 수상태양광발전은 95MW 규모이며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해 내년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하반기에 착공한다. 총 사업비는 2000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포

두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투자를 원하는 포두면 주민은 총 사업비 2000억원 가운데 20%인 4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고흥군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로부터 총 수입금의 5%를 임대료를 받게 된다. 이렇게 받게 될 연간 임대료는 14억원으로 추정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상광 태양발전은 물위에 설치해 발전 효율이 높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고흥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지난 13일 광주 남도전통음식연구소에서 열린 '토란 쿠킹 클래스' 참가자들이 토란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특산품 '토란 쿠킹 클래스'

광주·서울서 잇따라 토란영양밥 등 요리법 홍보

곡성군이 지역 특산품인 토란을 홍보하기 위해 '토란 쿠킹 클래스'를 최근 서울과 광주에서 잇따라 열었다. 토란의 전국 재배면적 절반을 차지하는 곡성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토란 수확이 한창이다. 곡성군은 대표 작목인 토란으로 다양한 가공식품과 토란 음식을 개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배농가 소득도 올리고자 토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란 쿠킹 클래스'는 수확 철을 맞아 곡성 토란을 홍보하고, 다양한 요리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세계식의 연구소에서 4차례에 걸쳐 쿠킹 클래스를 했고, 13일에는 광주 남도전통음식연구소에서 2차례 강연도 했다. 요리에 관심이 각 분야 120여명이 참석

해 토란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쿠킹클래스에서는 추석에 온 가족이 토란만들기 둘러앉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토란만두국, 토란영양밥, 토란강된장, 토란장조림 등을 요리했다. 광주에서는 전통음식 연구가들을 위한 토란고추장, 토란설기떡볶이, 토란영양떡, 토란전병 오색채의 레시피를 선보였다. 토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곡성토란의 홍보마케팅과 유통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토란웰빙식품 명품화사업단은 앞으로도 곡성의 지역축제와 곡성 지역의 토란전문음식점 등을 통해 토란음식을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지난 10일 열린 과역분장 개장식에서 송귀근(가운데) 고흥군수가 전통시장장인회원, 귀농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 귀농인 가게 '과역분장' 개장 눈길

귀농인 7명 과역전통시장서 커피전문점 등 오픈

고흥으로 귀농한 귀농인들이 고흥 과역전통시장에서 현대식 가게인 '과역분장'을 개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과역전통시장에 귀농인 7명이 커피전문점과 바느질공방, 요리스튜디오, 유제품가공판매, 경양식점 등 현대식 가게를 꾸미고 '과역분장'으로 새로 문을 열었다. 고흥군은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달 1만~2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점포를 빌려주고 전기와 수도시설을 지원했다. 귀농인들은 40~50대로 손수 간판을 만들고 벽화를 그려 쇠락해가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10일 송귀근 군수와 전통시장장인회, 귀농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역분장 개장식이 열렸다. 귀농인들은 앞서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귀농인들과 함께 프

리마켓을 열기로 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이날 개장식에서 "시장 상인회와 입점 귀농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시장이 침체되어 어려움이 많은데, 과역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시장으로써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호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귀농인 대표 박성숙씨는 "점포임대와 함께 기반시설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상인회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기부로 특색 있는 거리 단장을 위한 벽화 그리기와 관내 귀농인들과 함께 프리마켓을 기획중"이라고 말했다. 고흥군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36억여원을 투자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 특산물 '썩부쟁이' 알레르기 완화 효과 탁월

농진청, 추출물 쥐실험 결과 억제 성분 사이토카인 급증



우리 고�유의 나물인 '썩부쟁이(사진)'가 알레르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썩부쟁이의 건강 기능 효과를 밝히기 위해 순천향대학교와 함께 동물실험을 수행한 결과, 알레르기 완화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했다. 썩부쟁이는 이른 봄 들에서 가장 먼저 자라는 국화과 다년생 야생초로 부드러운 질감에 쓴맛이 나며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다. 흰 국화라고 해 한방에서는 '산백곡'이라 부르며 민간에서는 전통적으로 감기나 편도선염, 기관지염, 천식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해 왔다. 이번 동물실험은 썩부쟁이 추출물을 자라는 국화과 다년생 야생초로 부드러운 질감에 쓴맛이 나며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다. 흰 국화라고 해 한방에서는 '산백곡'이라 부르며 민간에서는 전통적으로 감기나 편도선염, 기관지염, 천식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해 왔다. 이번 동물실험은 썩부쟁이 추출물을 4주간 경구 투여한 쥐 집단의 혈청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글로블린(IgE)과 히스타민 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도 썩부쟁이 추출물을 먹인 집단에

서는 정상 생쥐 수준으로 조절됐다.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는 낮아지고,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은 크게 증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됐고 '썩부쟁이' 면역활성 조절 식품 제형 개발'로 특허등록을 마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 원료 등록을 제한한 상태이며, 농진청은 산업체 기술 이전과 상품화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썩부쟁이는 길이나 들에서 잘 자라는 잡초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 재배작물은 아니었다. 2012년에 구례군이 지리산나물 육성계획을 통해 전라나물로 선정하면서 농업법인을 설립해 2015년까지 시설과 단지를 조성했다. 현재는 구례군 지역농업특성화 작물로 지정돼 비가림하우스나 노지에서 2만3000㎡(2.3ha) 규모로 재배·생산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 표창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3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과 김승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우수지자체 시상과 유공공무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을 가졌다. 우수사례는 2017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3월~5월에 실시한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 중에서 사

도별로 추천받아 현장조사와 우수사례 선정위원회의 등 객관적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20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성군의 '풍경이 있는 꼬막섬 장도'는 마을 인구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섬 지역 분위기가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쁘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낀다"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본받아 또 다른 우수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구례군, 친절서비스 교육

구례군은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심진아트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해설 등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례를 찾는 관광객과 군

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및 식중독 예방 ▲원산지 표시기준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영업주들은 음식문화개선 및 남도 좋은 식단 실천 결의를 다지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구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